

# 위클리 이슈 가이드 - Ep.14

## Summary

- 글로벌 증시 조정: 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②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 국제 금 가격 신고가 경신 행진, 커피·코코아 등 강세
-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불안 고조

### 한 주간의 변화

- **(그림1) 글로벌 증시 전반 조정:** 4월 들어 글로벌 증시의 조정 폭이 커지고 있음. 이는 미국의 물가가 경직적인 가운데 시장이 예상한 대로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해 10월 중순 5%를 상회했던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8%까지 하락한 이후 현재 4.5%까지 상승. 상대적으로 완화된 물가 흐름을 보이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증시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 지난 13일(현지 시각)에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감행. 이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인정 이후 처음 있는 일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소재한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성 공격임. 금융시장이 휴장이었던 관계로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이란의 공격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
- **(그림2) 유가, 금 강세:**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유가 및 금 등 강세.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공급이 원활 하지 않은 코코아, 커피 등 농작물의 가격 강세 지속되는 모습 보임. WTI, Brent油 등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국제 금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온스당 2,370달러를 상회. 은 가격도 상승하며 202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중 원화 약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1. 글로벌 증시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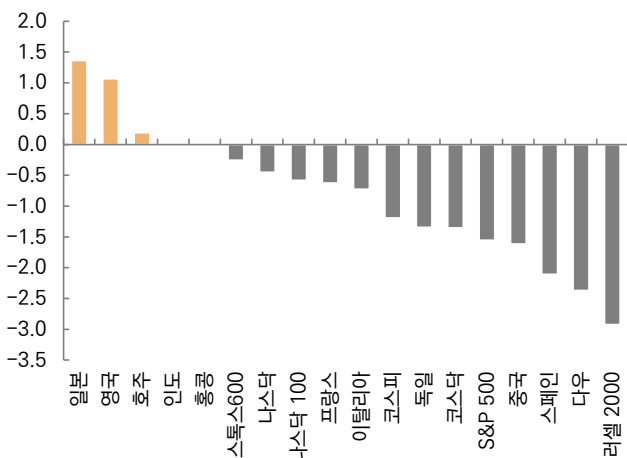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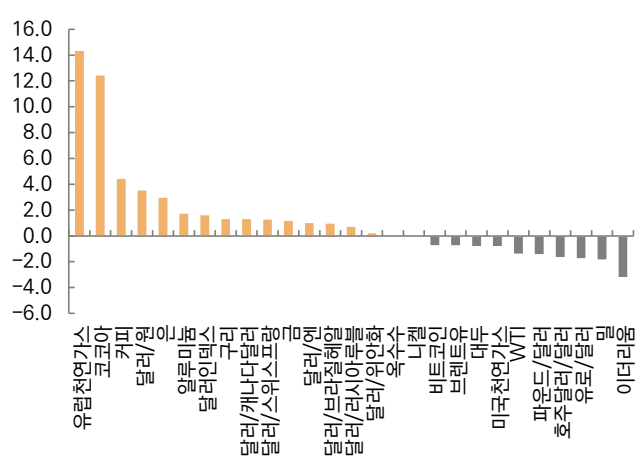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자산 주간 수익률(%)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간이슈] 중동 불안, 2차 물가 상승 자극할까?

• **이란-이스라엘 격돌.** 중동에서 <제5차 중동전쟁>에 대한 전운이 고조되고 있음. 이란이 13일 자정(현지시각), 이스라엘에 대해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발사.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군 고위급 지휘관 등 총 13명이 사망한지 12일만임. 다만, 이란의 공격은 상당히 절제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 돔에 의해 99% 요격됐음. 특히, 공격 직후 이란의 유엔 주재 대표부는 “이 문제는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또 다른 실수를 한다면 이란의 대응은 훨씬 더 엄격해질 것이다”라고 밝혀. 이는 이란의 추가 공격은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 대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 **이스라엘의 선택이 중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처음이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처럼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인들과 오랫동안 ‘그림자 전쟁’을 벌여오고 있었음. 이란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리인으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및 이라크 무장단체 등이 있음. 이제 선택의 공은 이스라엘에 넘어간 상황. 대응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향후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실제 이란의 공격에 성공적인 방어를 마친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점과 추가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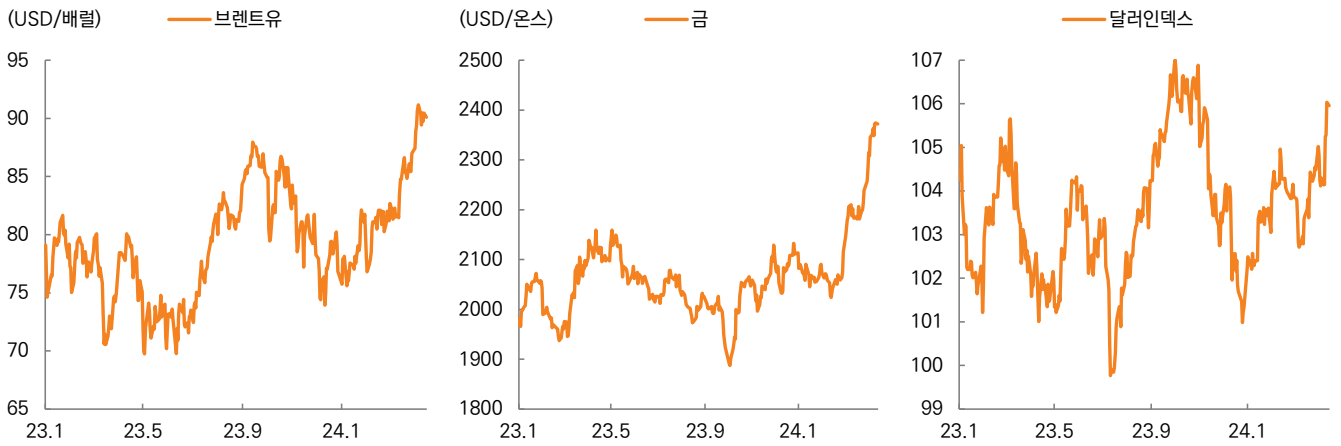
• **시나리오별 영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15일(현지시각) 보복 공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실제 일요일 열린 이스라엘 전쟁 내각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였음. 다만, 어떤 형태로든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시나리오별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① **전면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이스라엘 간 전쟁 억제를 위해 직접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장 불안심리는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 이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 달러강세, 안전자산 수요 증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이는 <제5차 중동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 큼.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운송을 틀어막을 경우 공급망 병목 현상 가중에 따른 오일 쇼크 재발 가능성도 상존. 무엇보다 팬데믹 이후 안정화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크고 이는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결국, 최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도 물가 상방위험을 반영하며 꾸준히 상승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② **그림자 전쟁 지속:** 현재 진행 중인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단체와의 분쟁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 이를 통해 그 동안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영토복원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 이란과의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잠재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만큼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 있음. 이 같은 경우, 최근 지정학적 이슈를 반영해 급등한 가격의 일부 되돌림은 있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인해 높은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③ **국지적 도발:** 현 상황에서 가장 소극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음. 이스라엘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비롯해 하마스, 헤즈볼라 등 고위급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암살하며 전력 약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미국의 전쟁 억제력을 수용하고 현재 미 하원에 계류중인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만큼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이라는 우려는 남음.

그림 3. 주요 자산별 움직임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4.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보복공격



자료: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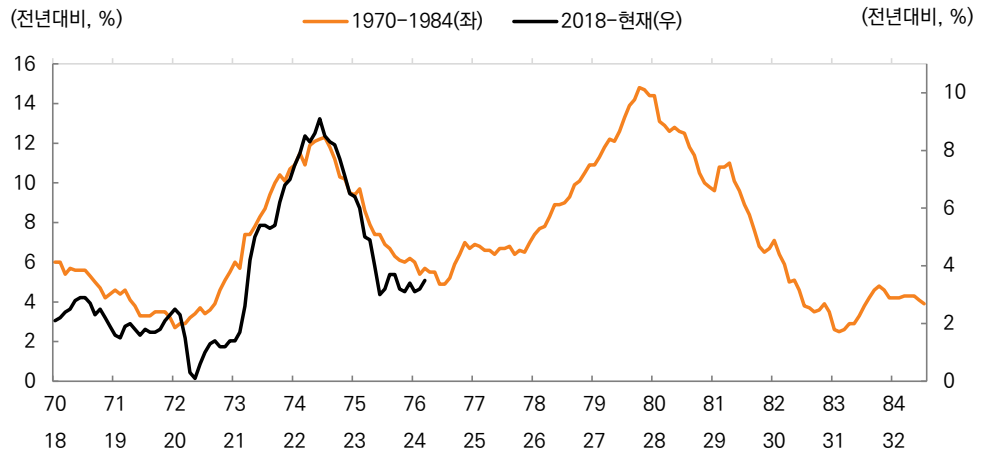
그림 5. 그림자 전쟁: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자료: 뉴욕타임스

**국제유가 상승에 주목**  
 이란-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정세의 불안은 유가 상승을 자극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확대시킬 것

그림 6. 1970년대 두 번의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원인은 제1, 2차 오일쇼크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7. 주간 경제지표 및 일정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p><b>일본</b> 2월 기계주문</p> <p><b>유로존</b> 2월 산업생산</p> <p><b>미국</b> 3월 소매판매 4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4월 NAHB 주택가격지수</p>	<p><b>한국</b> 3월 수출입물가</p> <p><b>중국</b> 1분기 GDP(예상 5.0%) 3월 산업생산·소매판매 3월 고정자산투자 3월 실업률</p> <p><b>독일·유로존</b> 4월 ZEW 경기기대지수</p> <p><b>캐나다</b> 3월 소비자물가지수</p> <p><b>미국</b> 3월 건축허가·주택착공 3월 산업생산</p>	<p><b>일본</b> 4월 단간지수 3월 무역수지</p> <p><b>영국</b> 3월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p> <p><b>유로존</b> 3월 소비자물가지수(확)</p>	<p><b>유로존</b> 2월 경상수지</p> <p><b>미국</b>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3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3월 기준주택판매</p>	<p><b>일본</b> 3월 소비자물가지수(이전 2.8%)</p> <p><b>독일</b> 3월 생산자물가지수</p> <p><b>영국</b> 3월 소매판매</p>
<p><b>채권</b> 미 국채 3·6개월물 입찰 * 3개월 \$700억, 6개월 \$700억</p> <p><b>행사</b> 솔츠 독일 총리 중국 방문(~16) IMF/WB 춘계회의(~20)</p> <p><b>발언</b> L. 로건 달러스 연은(14일) M.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p>	<p><b>채권</b> 미 국채 1년물 입찰 *\$400억(응찰률 2.88, 수익률 4.810%)</p> <p><b>공개</b> 존슨 레드북지수* 4.13주간 API 원유재고* 4.12주간</p> <p><b>발언</b> A.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P. 제퍼슨 연준 부의장</p>	<p><b>채권</b> 미 국채 20년물 입찰 *\$130억(응찰률 2.79, 수익률 4.542%)</p> <p><b>공개</b> 30년물 MBA 모기지* 4.12주간 EIA 원유재고* 4.12주간 연준 베이지북 OECD 1분기 실업률</p> <p><b>발언</b> L.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M. 보우먼 연준 이사</p> <p><b>휴장</b> 인도</p>	<p><b>채권</b> 미 국채 5년물 TIPS 입찰 *\$230억(응찰률 2.55, 수익률 1.710%)</p> <p><b>공개</b> 연준 H.4.1* 미 연준 대차대조표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13주간</p> <p><b>발언</b> M. 보우먼 연준 이사 J. 윌리엄스 뉴욕 연은 R.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p>	<p><b>공개</b> 연준 H.8* 미 은행 대차대조표</p> <p><b>발언</b> A. 굴스비 시카고 연은</p>
<p><b>미국</b> * 1분기 골드만삭스, M&amp;T 은행 찰스 슈왈츠(예)</p>	<p><b>미국</b> * 1분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존슨 앤드 존슨,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PNC 파이낸셜, 뉴욕 멜론  * 1분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p>	<p><b>미국</b> * 1분기 ASML 홀딩, 애보트, US뱅크  * 1분기 IBM(예)</p>	<p><b>미국</b> * 1분기 인포시스, D.R 호튼, 노키아  * 1분기 TSMC, 넷플릭스, 인튜이티브 서지컬</p>	<p><b>미국</b> * 1분기 프록터 앤 갬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슬람버거</p>

자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현지시각 기준. (잠) 잠정치, (확) 확정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예측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